



2026. 10. 19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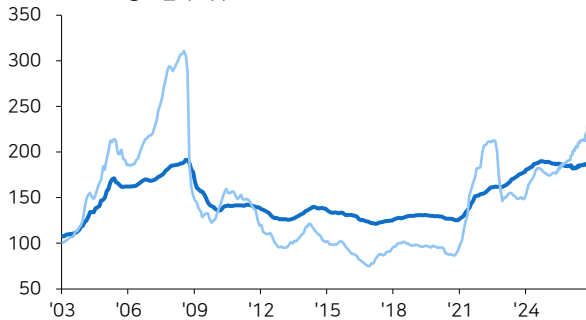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7p (-p WoW)

(pt) — 신조선가 지수
— 중고선가 지수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2.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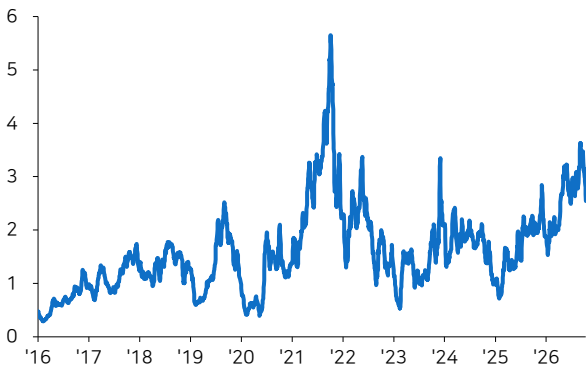
(달러/톤) — 중국 내수 후판가격
..... '10~'19 평균



건화물운임(BDI)

2,545.0p (-12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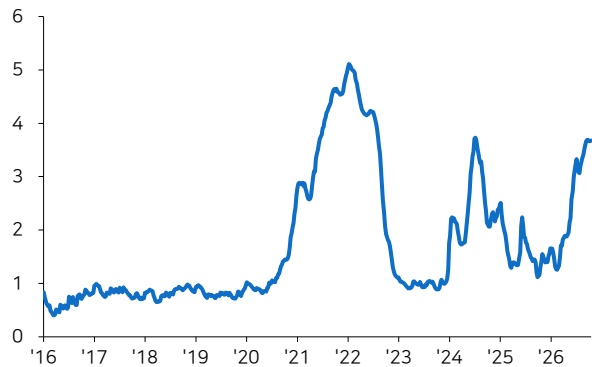
(천pt) — BDI



컨테이너운임(SCFI)

3,679.6 (+15.5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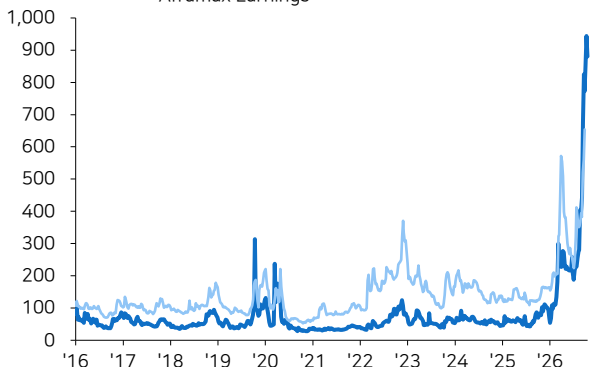
(천pt) — SCFI



VLCC Spot Rate

880.8WS (-63.4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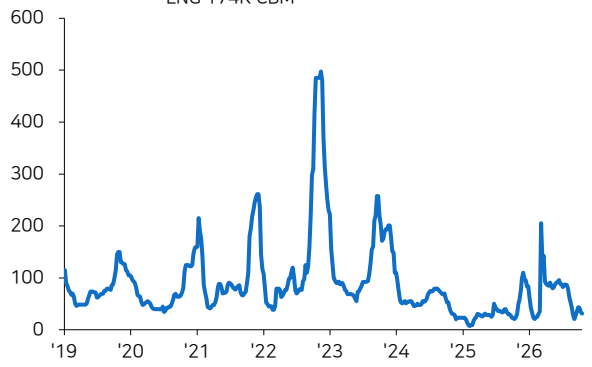
(WS) — VLCC Earnings
— Aframax Earnings



LNG Spot 운임

31.0천달러 (-3.3p WoW)

(천달러/일) — LNG 174K CBM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정부, 美에 '조선업 비자' 요구...마스가 이끌 韓 숙련공 길 연다 (서울경제)

<https://zrr.kr/50lyZe>

정부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 추진을 위해 미국 측에 조선업 특화 비자 쿼터와 안정적인 선박 발주 수요, 재정적 인센티브, 해외 건조 규제 완화 등을 투자 이행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보도됨. 미국 조선업은 숙련 인력 부족이 심각해 향후 10년간 해양 산업에서 20만~25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산되며, 정부는 용접·배관 등 한국 숙련 기능인력의 현지 진출을 위한 별도 비자 통로와 함께 번스·톨레프슨법 및 존스법 개선을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짐.

US regulator FERC proposes 'blanket authorisation' to speed up LNG projects (TradeWinds)

<https://zrr.kr/B5k0VW>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LNG 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 승인 제도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보도됨. 제도 도입안은 시설 용량이나 부지 변경이 없는 일부 작업은 자동 승인하고, 승인 용량을 늘리는 작업은 60일 전 사전 통지, 신규 액화설비·저장탱크·부두 건설 등은 90일 전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3단계 체계로 구성됐으며, 향후 6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LNG 프로젝트의 인허가와 최종투자결정(FID)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2025년에는 총 연산 5,500만톤 규모의 LNG 개발사업 6건이 FID를 완료했고 올해도 추가 3건이 승인 이후 FID에 도달했다고 전해짐.

ExxonMobil takes over at Papua LNG as progress gathers pace (Upstream)

<https://zrr.kr/dmnepn>

ExxonMobil이 총 140억달러 규모의 파푸아뉴기니 Papua LNG 프로젝트 운영권을 TotalEnergies로부터 넘겨받았으며, 기존 PNG LNG 수출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한다고 보도됨. 이번 프로젝트는 가스 매장량 약 6.5조입방피트와 콘덴세이트 5,700만배럴을 기반으로 연산 560만톤 규모의 LNG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지 토지 소유주와의 개발 이익 공유 협의가 1단계 완료돼 올해 12월 중 최종투자결정(FID) 가능성이 커졌다고 알려짐. 주요 EPC 계약은 발주 권고안 마련 단계로, 상류시설은 한국 대우건설, LNG 액화설비 3기는 일본 JGC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전해짐.

해외 잠수함 수주 사활 건 방산업계... 국내 물량 딱 1 척 남았다 (조선일보)

<https://zrr.kr/8G17cP>

HD현대중공업이 3조원 이상 규모로 추산되는 아르헨티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에 도전하며, 자체 개발 중인 수출용 1,500t급 잠수함 HDS-1500 관련 정보를 아르헨티나 측에 제공했다고 보도됨. 국내 조선사들은 페루·필리핀·칠레·사우디아라비아·그리스 등 총 6개 해외 잠수함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이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국의 노후 잠수함 교체 및 신규 도입 수요를 두고 해외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알려짐. 국내 중형 디젤 잠수함 건조 물량은 2029년까지 건조 예정인 1척을 끝으로 사실상 소진될 전망이다, 업계는 전문 인력과 100여 개 핵심 소재·부품·장비 업체로 구성된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정부의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해짐.

캐나다 대서양 바람길 연다... 한화오션 북미 첫 해상풍력 수주전 합류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xjaUuw>

캐나다 연방정부와 노바스코샤 주정부가 해상풍력 초기 개발 기반 조성을 위해 1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해당 자금은 해상 기상 관측과 해저 케이블 경로 조사, 2027년 겨울 첫 입찰 준비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이번 사업은 노바스코샤 해상풍력 전력을 퀘벡·온타리오 등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 검토를 포함하며, 한화오션·큐에너지 프랑스 컨소시엄을 비롯한 7개 기업 및 컨소시엄이 입찰 사전 자격을 확보했다고 알려짐. 북대서양의 거친 해상 환경으로 부유식 하부구조물과 해양 엔지니어링 역량이 중요해 한국 조선업계의 북미 해상풍력 시장 진출 기회가 마련됐으나, 송전망 구축 비용 부담과 인허가 지연이 향후 입찰 일정의 변수로 남아 있다고 전해짐.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지분 전량 매각... 1조 4,000억원 확보 (조선비즈)

<https://zrr.kr/laUsYx>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한화오션 보통주 2,217만주(지분율 7.24%)를 전량 매각하고, 키움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과 1년 만기 PRS 계약을 체결해 1조3,834억원을 확보한다고 보도됨. 한화시스템은 지난 4월 한화오션 지분 일부를 유동화해 1조7,000억원을 조달한 데 이어 이번 거래로 누적 3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며, PRS 계약 기준가격은 한화오션의 10월 15일 종가인 주당 62,400원이라고 알려짐. 한화시스템은 확보한 자금을 위성·국방 AI 등 미래 성장사업 투자와 중장기 사업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며, 주가 변동에 따른 만기 정산 의무는 남아 있다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